

сахалин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5em;">새고려신문</div>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2월 14일(금) ..(음력 1월 21일).. Пятница 14 февраля 2020г. № 6(116873)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2월 15은 국외에서 군복무를 수행한 러시아군인 기념일이다. 이날 아프가니스탄을 비롯 외국에서 전사한 군사들을 추념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 단신

### 유즈노사할린스크, 참전 원로들에게 기념 메달 수여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1941년-1945년 대조국전쟁 승리 75주년> 기념 메달 수여식이 있었다.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이 일부 참전 원로들에게 기념상을 수여했다. 승리의 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기념 메달을 받아야 할 사람은 총 387명이다.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올해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한 해로 대조국전쟁 75주년을 맞이한다. 이 전쟁은 우리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다.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전투와 노동의 공적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을 전하고 청년들과 함께 애국 활동을 하는 원로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역사적 기념보존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승리의 세대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언제나 정부로서 우선시 되었다고 강조했다.

기념 메달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모든 원로들이 5월9일까지 받게 된다고 시홍보실이 전했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 연 대출이자 2%를 위한 설명회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는 <극동 주택 담보 대출> 신용 혜택 조건 프로그램의 잠재적 참가자들에게 정보 전달과 설명회로 주민들과 함께 일련의 만남을 진행한다. 행사는 <모지나>문화회관에서 2월 14일 18시 30분과 2월 20일 17시에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우선 젊은 가정과 주택 프로그램의 증명서나 등록증을 받은 사람들을 비롯해 <극동 용자> 프로그램에 따른 용자 혜택을 이용하려는 사람, 극동 핵다르 프로그램에 따라 토지를 받아 개인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들을 초대한다. (참석 시 여권을 소지해야 함.)

### 유즈노사할린스크, <우정의 다리> 리얼 음악가들의 공연 개최

지난 2월 9-10일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보관부의 주최, 사할린주민총창작센터 및 주유즈노사할린스크일본 총영사관 주관하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우정의 다리>공연이 펼쳐졌다. 일본 음악가 에토 마사키(피아노), 에토 시노부(바이올린), 주민총창작센터 아나스타시야 트리포노와 전문가(가창), 민속악단 <페레즈본>(호스크),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의 러시아민속악단과 <손체워로트>민속단, 보컬양상블 <엑스프롬트>(돌린스크)가 좋은 협연을 보여주어 관중들의 사랑박수를 받았다.

이날 에스트라다 음악과 클래식 음악, 러시아의 전통음악, 일본 만화영화의 삽입곡 연주가 관객들의 마음을 끌었다.

## 사할린주 정부, 사할린 투자 기획의 비용 계산

2월 10일 사할린주 정부는 투자협회의 회에서 당면한 투자 기획의 실현을 위해 작성한 지출 총계 자료를 발표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관광개발 여건 조성, 북극해 항로 개척, 주택문제 해결, 새로운 생산 전개를 위해 5년간 약 3조 루블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조7천억 루블리는 석유가스 부문에 배당하고, 1조3천억 루블리는 사할린 경제개발과 다각적 발전에 투입할 계획인데 이 중 51.6%의 6,340억 루블리 이상은 민간 투자를 조장해야 한다.

투자협회의 회 중에 새로운 투자 기획 15개가 제시되었지만 기존의 기획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었다. 안톤 자이체브 부총리는 모든 이 기획들을 실현하는 데 드는 비용이 7,400억 루블리임을 확인했다. 그 중 1,660억 루블리는 사할린주가 투자해야 하고 남은 5,770억 루블리는 여러 연방 투자자들에게 기대하고 있다. 모든 조치의 실시로 2024년과 2025년까지 연간 5%의 경제 성장을 확보해야 하며 5만7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총생산액을 2,148억 루블리로 증대시켜야 하며 1,170억 루블리의 수출 실적액을 달성해야 한다. 당면한 투자기획들을 실현하지 않으면 석유가스 부문과 경제적 자원 수출을 목표로 한 경제 발전은 부진하거나 위축될 거라 전망하고 있다.

주지사로서 알레리 리마렌코는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지역의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의 세계화 및 현대화를 자신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주에서는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기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 주지사, 유즈노쿠릴스크구역 방문

사할린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지난 11-12일 이틀간 유즈노쿠릴스크구역(쿠나쉬르 및 쉬코탄 섬등)을 방문했다.

지난 11시 저녁에는 그는 쉬코탄 섬 말로쿠릴스크 마을의 43 가구에 새 집 열쇠를 전달했다. 이곳에서 주민들을 위해 3층 주택 2동을 건설했다.

다음날 쿠나쉬르 섬에서 건축된 새 주택 입주식이 있었다. 여기에는 의사, 교사, 군인 가정을 포함한 129가구에 주택이 지급되었다. 오토라다 마을 8동 주택 중 4분의 1을 분양했다. 쿠릴 지역을 방문 중인 둘째 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입주민들에게 열쇠를 건넸다.

<사할린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 회사가 일본의 건축기술로 쿠쉬나르섬 오토라다 마을 켈료노이 거리에 단열재를 사용해 건축한 3층의 공동주택들은 진도 10의 강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도 되어 있다고 한다. 쿠릴열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층의 움직임이 기록되기 때문에 내진 설계는 중요하다.

유즈노쿠릴스크구역을 출장 시 리마렌코 지사는 여러 사회경제 시설과 기관을 시찰했는데 그중 하나는 투자 기획 일환으로 사할린주 개발공사의 지원 아래 유즈노쿠릴스크에 건설 중

인 신축 수산물가공공장이다. 공사 착수는 2018년 5월에 시작해 건물은 이미 설비 작업이 마무리되고 장비도 갖추었다. 4월 초에는 시가동을 시작해 7월에는 공식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 가공공장에서는 생선 폐기물들을 어분과 어지방으로 가공하게 되는데 이 제품들은 양식장의 물고기 사료와 가축의 사료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생산시장에서 이 제품은 수요가 매우 높아서 앞으로 사할린주 축산업들과 러시아 남부, 벨고로드와 볼고그라드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0억 8300만 루블리를 들여 완공하게 된다.

<유즈노쿠릴스크 수산물가공공장> 회사는 이외에도 2개의 투자 기획을 시행하고 있다. 하나는 라군노에 호수에서 1년에 2천만 마리 치어를 양식할 연어 양식장 건설과 어류 가공 시설의 현대화 및 어획, 생산품 운송 선박 확보다.

또한 12일 주지사는 유즈노쿠릴스크 주민들과 구역문화회관에서 만남을 가졌다. 모임에서는 주로 의료 및 보건 문제를 의논했다. 주민들은 특히 의료진 부족 문제를 많이 내세웠다.

또한 의료장비, 새 병원과 학교 건설 문제, 교통 문제 등등이 논의되었다.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 새고려신문

##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5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한인의 가족사

엄마 대신 할아버지에게 인사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 박영자 단장에게는 지난 2019년은 특별한 해였다.

사할린 한인 사회계에서 무용과 한민족 음악을 즐기는 사람으로 잘 알려진 박영자 단장은 한인문화센터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파견된 강사들에게서 무용, 가야금, 장구 등을 배웠다. 그 이후로 한국 무용과 가야금에 몰두해 연습하고 스스로를 단련시켰다. 한국 전통춤과 가야금 연주 무대에 오르면서 여러 행사에 초대 받기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한민족 예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요즘은 박영자 단장은 <아리랑>무용단 활동을 열심히 하고 한글학교 유아교실의 강사도 겸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아리랑>무용단은 작년에는 한국 아리랑 경연대회에서 늘푸른청춘 부문에서 금상을 타기도 했다.

이렇게 바쁘게 지낸 와중에 박영자 단장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소원을 작년에 이룰 수 있었다고 했다. 박 단장의 소원은 어머니의 아버지인 외할아버지의 묘를 찾아 인사하는 것이었다.

박영자 씨의 1928년생인 모친 현민제(현남열)는 16세가 될 무렵에 1944년에 사할린에 계시던 박 씨의 외조부 댁을 찾았다. 그러나 사할린 우글레고르스크(에수투루)구역의 탄광에서 일했던 외조부는 이중징용을 당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미 일본 고베의 한 탄광에 가있었다고 한다. 사할린에 남은 아내와 셋째 딸에게는 금방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박영자 씨의 모친은 제주도에서 친할머니 댁에서 살았다. 이미 시집간 언니의 두 아들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16세 되자 할머니는 "애야, 가라후토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했다고 한다.

박영자 씨는 모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어머니가 너무 고와서 친할머니가 일본군이들이 예쁜 처녀를 데려갈까봐 걱정해서 딸을 사할린에 보낸 것 같았다."고.

그러나 사할린에 와서 모친은 박영자의 외조부를 생전에 영영 못 보게 되었고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가 모친의 한이 되었다고 한다. 박영자 씨는 어머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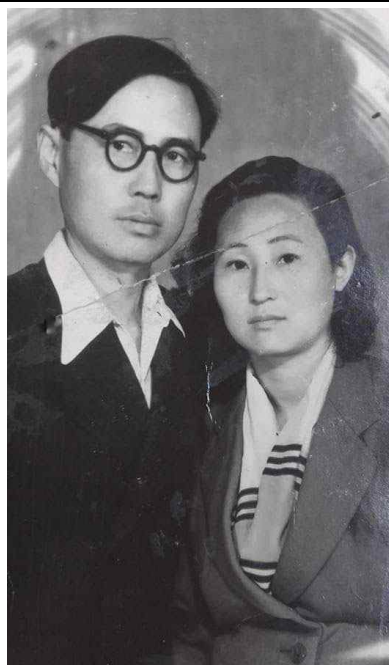
이에 대해 가족에게 자주 이야기했다고 했다.

박영자 씨의 부친 박정환은 전라남도 하의도 출신이다. 하의도는 목포 근처 작은 섬이다. 1944년에 부친은 하의도의 한 사람과 함께 강제 동원을 당했다. 사할린에서 부친은 벌목장에서 일했다. 박영자 씨의 부모는 1945년 전쟁 이후 코르사코브에서 만났다고 한다. 고향에 갈 수 있다는 기대를 품은 동포들은 그 당시 코르사코브에 몇 년간이나 모여서 살았다.

박영자 씨는 딸딸이다. 1951년에 코르사코브에 태어난 그는 한 달이 되어 가족이 사할린 북부의 스미르니호구역 오노르마을 근처에 동포들만 사는 동네에서 살게 되었다. 이 동네에는 부친과 함께 온 부친의 동서들도 꽤 많았다고 한다. 이들은 주로 벌목장에서 작업을 했다. 동포들은 조선말만 했었다. 오노르 마을에서 마침내 박영자 씨의 남동생 셋이 태어났다.

박영자 씨가 학교에 입학해야 해서 가족은 스미르니호마을로 이사했다.

"저는 그때 처음 러시아 사람



박영자 씨의 부모 (박정환 내외)

을 봤거든요. 언어도 다르고 서양인으로서 외모도 낯설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 이곳 사람들이 왜 우리랑 달라요?'라고 여쭙봤죠. 그러자 아버지는 조선사람들이 어떻게 사할린에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강제징용 당했는지,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합병했던 당시 얘기를 그때 처음 설명해주셨어요."라고 박영자 씨가 말했다.

"아버지는 아마 모든 1세 분들과 똑같이 고향을 그리워하셨어요. 항상 밤에 라디오 수신을 켜고 한국 방송을 기다리셨습니다. 한국 노래를 들으시면서 자주

우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어려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노래가 즐거운데 왜 우시지?' 라고 생각했죠.

88 서울올림픽 때. 이미 시집간 저는 어느 하루 부모님 댁을 찾았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 아버지 두 분 다 눈이 부어 계셨어요. 밤새도록 우셨다고 했어요. 듣고 있던 라디오에서 바로 아버지 박정환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사방팔방으로 연락을 취해 사할린 동포들을 돕고 있는 일본의 변호사 타카기 켄이찌를 통해 편지로 연락을 하여 다음해 친척의 초청을 받아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일본을 통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3형제 중 둘째였어요. 아버지의 형과 남동생은 6.25전쟁 때 실종되었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작은아버지의 아들들이 찾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고향인 하의도, 친척들이 사는 곳인 목포, 어머니의 고향인 제주도 이 모든 곳을 다 찾아왔습니다. 물론 서울도 가보았어요. 제주도에 머물 때 어머니가 엮어주며 키웠던 조카들을 만날 수 있었고 외할아버지의 소식도 알아봤어요. 이중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던 외할아버지는 이후 재혼도 하지도 않고 혼자 아들을 키우시다가 오사카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저는 외삼촌의 연락처를 받고 잘 간직했어요.

(3면에 계속)

이모저모

한국 영화 '기생충' 미국 오스카상 수상

2월 8일, 한국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 92회 미국 영화 예술 과학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의 오스카상을 수상했다.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작품상'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 봉준호 감독은 한국 영화 감독으로서 최초로 오스카상 수상자가 되었다. 무엇보다 외국어로 된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9년에 영화 '기생충'은 이미 프랑스의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미국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포함 3개 부문 수상,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외국어 영화상과 각본상 등 4부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영화제에서도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영화 "기생충"은 '세계의 끝' 제9회 사할린 국제영화제에서 사할린 대중들에게 상영되었다. 이 기간에 '어떻게 하면 영화를 볼 줄 알까?'라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경쟁 영화 부문에서 상영이 이루어졌다.

영화 «Паразиты» удостоен премии «Оскар» в главной номинации

9 февраля филь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Пон Чжун Хо «Паразиты» завоевал четыре премии киноакадемии США «Оскар». 92-я по счёту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премии «Оскар» проходила в Голливуде на сцене Dolby Theatre. Фильм победил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й фильм», «За лучшую режиссуру», «Лучший оригинальный сценарий» и «Лучший зарубежный фильм». Пон Чжун Хо стал первы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режиссёром, номинированным на «Оскар», при этом «Оскар» в главной номинации впервые получила картина не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Ранее «Паразиты» были удостоены таких наград как «Золотая пальмовая ветвь» Кан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2019 года, премия Гильдии актёров за лучший актёрский состав, награды «Лучший оригинальный сценарий» и «Лучший фильм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премии Британской академии (BAFTA), премии «Золотой глобус» за лучший зарубежный фильм.

Фильм «Паразиты»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сахалинской публике во время девято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Край света". Внеконкурсный показ

фильма состоялся в рамках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Как научиться смотреть кино?».

200여명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 조기 중앙 발견 활동의 일환으로 검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 200여 명이 중앙 전문의와 상담을 했다. 2월 8일 사할린주에서 중앙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실시되었다. 이 행사는 '세계 암과 투쟁의 날'에 맞추어 시행한 가운데 1차 검진은 주내 및 지방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주내 중앙진료소에서 주민들 진료를 일반 중앙학, 유방암, 신경종양, 비뇨기종양, 복부종양, 두경부암의 각 전문의들이 진단했다. 검진에 대장내시경, 초음파 검사, 컴퓨터 단층촬영을 동원해 진행했다.

167명의 환자가 검진을 받은 가운데 이중 9명에게서 악성 종양으로의 전이가 의심되어 이들은 의료기관에서 추가 검사와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조기 중앙 발견 검진은 의료상담 및 진단센터에서도 실시했다. 26명이 유방암 검사를 받았고 갑상선과 유선 및 복부 장기 초음파 검진은 70명, 유방 조영술은 29명이 받았다. 검진 결과 이중 4명에게서 종양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사할린주 조기 암 발견을 목적으로 한 이 행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주 보건부 홍보실이 전했다.

200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сходили к онкологам в рамках акции

Более 200 жите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лись с онкологами. Акция,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раннее выявление онкопатологии, состоялас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8 февраля.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приурочено ко всемирному дню борьбы против рака. Первич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в областных и район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В областном онкологическом диспансере прием населения вели онкологи общего профиля, онкогинеколог, онкогинеколог, онкоуролог, абдоминальный онколог и лор-онколог. Работали кабинеты УЗИ, КТ и колоноскопии.

Всего было принято 167 пациентов, у 9 из них был заподозрен злокачественный процесс. Дальнейшее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лечение он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 нашем медучреждении.

Обследования на выявление онкозаболевани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водили и в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м центре. Онкологом-маммологом было осмотрено 26 человек. Проведено 70 ультразвуковых обследований органов брюшной полости, молочной и щитовидной желез. Выполнено 29 маммографий. В результате исследований у 4 пациентов выявлено подозрение на онкозаболевани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аннюю диагностику рак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ходят регулярно,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здрава.

남 쿠릴지역에서 샤툰곰 출몰

남 쿠릴지역의 개인기업 구역에 샤툰곰이 출몰해 경비원을 건물 꼭대기로 쫓아내고 경비건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비원은 즉시 산림구조대의 구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오지구역에 도달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이용해야 했다. 이 긴급 사건은 며칠 전 <아일랜드 피시 인베스트>해양수산기업을 위해 확보된 수렵구역의 왈렌틴 호수 부근에서 발생했다. 중간 크기의 곰은 경비원이 근무하는 곳으로 다가와 면전에서 개를 잡아 먹었다.

"이 긴급 소식이 지역 산림수렵경제부에 전달되어 국가비상사태부 직원들에게 신호를 전해 긴급 작전팀이 구성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지방 정부는 이송팀과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헬기를 이용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그 구역에서 곰을 발견하고는 총을 발사했다. 실제로 그 곰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려고 했다."고 주 산림수렵경제부 다닐라 두다레브 차관이 전했다.

이 곰은 이미 이 기업의 경비원 면전에 한두 번 출몰한 곰은 아니었다. 곰은 마르고 튼실해보이지 않았으며 몸에 지방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해 계속해서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두다레브 차관은 올 겨울 사할린주에 샤툰곰의 출현은 처음이라 덧붙이고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На Южных Курилах медведь-шатун загнал сторожа на крышу и съел собаку

На Южных Курилах медведь-шатун ворвался на территорию част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загнал сторожа на крышу здания и задрал собаку. Мужчина смог вызвать на помощь лесничих и спасателей. Чтобы добраться до труднодоступного места, пришлось задействовать вертолет.

(8면에 계속)

### 블라디보스토크에 독립운동가 이동휘 선생 기념비 건립

올해 9월30일 한러수교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독립운동가 이동휘 선생 기념비 제막식이 열릴 것이라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블라디보스토크시 정부 공보실의 발표를 인용해 전했다.

2월3일 타스통신은 블라디보스토크시 정부 공보실이 "2020년에 있을 한러수교 30주년 축하 행사 중 하나로 이동휘 선생의 기념비 제막식을 갖기로 결정했다. 또 이와 관련해 한국 각계각층의 대표단과 일반 국민이 자주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동휘 선생 기념비 건립은 블라디보스토크시 정부가 블라디보스토크주제 한국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실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블라디보스토크시는 이동휘 선생 기념비 건립으로 도시의 역사를 보존하고 도시 내 관광 노선망 개



이동휘 임시정부 국무총리 [사진=공훈전산사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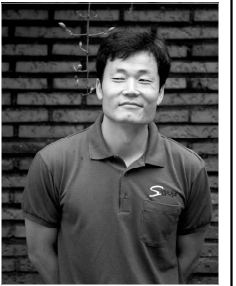
"현재 이동휘 선생의 기념비를 블라디보스토크에 건립하는 문제는 블라디보스토크시장 산하 문화예술 협의회에서 긍정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건립 장소 및 기념비 초안은 블라디보스토크시와 한국 총영사관이 협의 중이며 양측이 최종안을 확정하지는 못했다"고 블라디보스토크시 정부 공보실은 설명했다. 기념비 건립 장소로 검토되고 있는 곳은 포크롭스키 성당 반대편의 트롤리버스 주차장 인근 '옥차브리스크' 소공원의 상부 지점이다.

이동휘 선생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로 삼일운동을 주도했으며 한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다. 그는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의 박해를 피해 블라디보스토크에 은신하여 거주했으며 1935년 1월31일 사망해 그곳에 묻혔다. (출처: 월드코리안)

###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 쓸 데 없기를

장례식장에서 몇 달을 지냈다. 글을 쓸 작업실을 찾다가 그리 되었는데 일단 장례식장이니 조용할 것 같았고 나중에 죽음에 관한 글을 쓸 계획도 있었다.



지내보니 조용하지만은 않았다. 작업실로 쓰던 이층 상주용 방에서 창을 열면 일층 장례식장 소리가 들려 왔다. 삶은 울음으로 요약되는 것이었다. 가장 슬픈 이별이 일상이 되는 공간에서 나는 창창하게 살아갈 아이들이 입을 동화를 썼다.

지친 유족들이 잠들고, 떠들썩하던 조문객의 술판도 찾아든 늦은 밤에는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다. 신경이 팽팽하게 곤두서는 느낌에 등을 곧게 세우고 새벽을 맞았다. 창밖이 밝아오면 눈에 수건을 올리고 잠을 청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밤, 글이 써지지 않아 방바닥에 드러누웠다. 문득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옆방이 궁금했다. 드물게 장례식장이 텅 빈 날이었다.

장례지도사가 옆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금기는 유혹,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스위치를 켰다.

방이 번쩍 밝아지자 쌓여 있는 관이 보였다. 그중에 내 눈길을 끈 건 처음 보는 아이용 관이었다. 오래되어 바짝 마른 나무판에 하얀 먼지가 비단처럼 덮인 관.

아이들이 쓰는 물건은 모두 귀엽다. 관마저도 아이의 신발처럼 작고 짧고 귀여웠다. 나는 아이용 관을 열어보았다. 아이가 늙기에는 딱딱해 보였다. 어깨가 편하도록 폭이 조금 넓었으면 싶기도 했다.

슬프도록 예쁜 아이용 관을 보다가 조용히 뚜껑을 닫고 작업실로 돌아왔다. 벽 너머에 쌓여 있는 관을 생각하니 어쩐지 열심히 써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잠은 더더욱 오지 않았고.

그때 쓴 동화책을 보면 지금도 관 생각이 난다. 여전히 그 곳에 있었으면, 먼지가 쌓이고 쌓여 아무도 찾지 못했으면, 제발 영원히 쓸 데가 없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광주에서 김남중

### 사할린 한인의 가족사

## 엄마 대신 할아버지에게 인사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 (2면의 계속)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무국적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친척이 있는 경우 외국 방문 허가가 떨어졌지만 그 당시 일본에서 친척을 찾고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소비에트 정권이 무너지면서 더욱 어려워지죠. 그리고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묘를 찾으려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시고 1995년에 돌아가셨어요. 다음해 고향을 그리워하시던 아버지는 '이제 엄마도 없으니 고국으로 가고싶다.'는 의사를 나타내셔서 우리는 가족 모임에서 '그렇게 해드리자.'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영주귀국을 하셔서 처음에 아버지는 '사랑의 집'양로원에서 계시다가 나중에 인천 '사할린한인복지회관'으로 옮기셨어요. 저는 사할린에서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떠나 여러 일을 해봤어요. 그리고 휴일마다 인천에 계신 아버지를 찾았어요. 이렇게 몇 년간 지내다

가 저의 딸이 출산하게 돼서 손녀를 돌봐줘야 했죠. 그런 후 완전히 사할린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의 유해를 사할린으로 가져와 어머니의 묘 곁에 나란히 안치해드렸어요.

그동안 한국의 친척들과 연락도 계속해왔는데 세월이 바쁘다 보니 외할아버지의 묘를 찾을 생각도 별로 하지 못했어요. 소셜네트워킹을 하는 저는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낯선 외국 남자가 친구하는 신청이 들어왔어요. 사실 거부할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라고 했죠. 한국말로 답변을 했더니 그분이 사할린한인역사와 저의 가족사에 관심을 가졌어요. 재일동포 2세이신 그분이 제주도 출신인 부모님이 일본에 강제동원되었다는 얘기에 더욱 신기해했어요. 그는 제가 거의 30년 간직하고 있던 외삼촌의 연락처를 달라 하시고 오사카에



계신 외삼촌 댁에 전화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기적처럼 외삼촌 댁 전화번호와 주소는 그대로여서 연락이 바로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12년 전에 별세하셨고 외숙모는 살아계시다고 했어요. 이 소식을 알고 저는 이틀동안 울었어요. 이틀이 지나 지인이 알려준 대로 오사카 외숙모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외숙모는 일본말을 섞어 오랫동안 얘기하셨습니다. 얘기 끝에 '내일 오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갈 수가 없었고 준비해서 석 달 후 저는 오사카를 찾아드디어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에게 인사를 올렸어요. 묘 앞에서 서 있으면

서 저는 '엄마, 대신 외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필자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족들이, 특히 후손들이 자기 가족사를 알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인데 바쁘게 지내다 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놓친다. 세상을 타계한 후에야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셨을 때 물어봤으면 좋았을 걸'하며 후회를 한다.

새고려신문은 가족사를 통해 사할린한인 역사를 함께 작성해보자 해서 독자들의 이야기를 기다린다.

(배순신 기자)

### 2020년도 한글학교 교사·교장 초청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총 350명 초청, 7.6(월)~7.13(월)

7박 8일간 The-K호텔에서 시행

개별 온라인(www.korean.net) 신청 후, 신청서 사본 관할공관에 제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전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의 교육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2020년 한글학교 교사, 교장 초청연수'를 시행한다.

금년도 초청연수는 오는 7월 6일부터 13일까지 7박 8일간 서울 양재동 The-K호텔에서 350명(교사 300명, 교장 50명) 내외의 한글학교 현직 교사 및 교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양한 과목의 교수법 실습, 한글학교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 등 한글학교 교원으로서는 역량 제고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우성 이사장은 "차세대 동포의 한글교육은 정체성 함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서, 정부에서도 동 사업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결정한 바, 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여 뜻깊은 연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청연수 참가자로 선발되면 연수 참가를 목적으로 구매된 왕복 국제선 항공료(이코노미석)의 50%를 지원하고 연수기간 동안 숙식(7박, 2인1실)을 제공한다.

초청연수 참가를 희망하는 현직 한글학교 교사, 교장은 3월 4일까지 코리아넷(www.korean.net)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관할공관에 신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동 사업은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997년 재단 설립시기부터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Сахалинские буряты, алтайцы и корейцы объединились, чтобы отпраздновать Новый год



8 феврал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прошел тематический вечер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циональных диаспор и землячеств рассказали о том, как отмечают этот праздник в Южной Корее, Китае, Бурятии и Республике Горный Алтай. Артисты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горловое пение, сыграли на барабанах и показали гостям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стюмы.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ведущий библиотекарь, один 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вечера Арюна Жаргалова, у каждого из восточных народов свои дата и традиции празднования Нового года. Если в Поднебес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е его отметили еще 25 января, то в Бурятии Сагаалган, или праздник Белого месяца, приходится на 24 февраля. Новый год в Республике Горный Алтай носит название Чага-Байрам (Белый праздник), и его также празднуют в феврале.

Вечер прошел при поддержке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ждое землячество представило свою творческую программу. В концерт вошли выступления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щиков, знакомого и любимых сахалинцами ансамбля «Ариран».

Юные вокалистки из объединения «Китайский язык» Дворца детского (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исполнили песню на китайском языке, а артист, представляющий Горный Алтай, поразил зрителей горловым пением и игрой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инструменте товшуре.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вечера рассказали гостям о традициях празднования нового года в своих семьях.

— Бурятский новый год длится ровно месяц. Это значит, что с 24 февраля по 24 марта мы имеем полное право ходить в гости, угощаться буузками — нашим национальным блюдом, дарить друг другу подарки, — рассказала одна из участниц вокальной группы «Землячества Бурятии «Байкал».

Для Галины Пак, руководителя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ого традиционного танца «Ариран», Новый год связан, прежде всего, с почитанием предков.

— Дети и внуки приходят в гости к пожилым родственникам, кланяются дедушкам и бабушкам. Старшие в ответ дарят им конверты с деньгами. И неотъемлем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семейных застолий — суп ттоккук, — рассказала Галина Пак.

К празднику, посвященному восточному Новому году, сотрудники библиотеки подготовили книжную выставку. В нее вошли издания о монгольском и бурятском народах.

РИА «Сахалин-Курилы»

## «Юккодюн» – русская школа в Пхеньяне

В конце 2019 года в свет вышла книга «Русская школа в Пхеньяне», составленная по воспоминаниям бывших учеников школы «Юккодюн» («Шестая школа»). Школа просуществовала недолго с 1953 по 1958 год. В ней училось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учеников и было пять выпусков десятых классов. С тех пор минуло больше шестидесяти лет и теперь самым младшим ученикам «Юккодюн» уже перевалило за семьдесят. У каждого из них упоминание о школе «Юккодюн» вызывает светлые и тепл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об их детских и юношеских годах.



Май 1954 года, первоклассники средней школы №6 города Пхеньяна. Фото из архива Юрия Когая.

Школа была во многом уникальной, вряд ли где ещё и когда-либо в истории было и будет что-то подобное. «Юккодюн» была создана в год окончани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1953), когда вся страна лежала в руинах после страшных бомбардировок, а народ бедствовал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крыши над головой и пропитания. Тем не менее, для детей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находились и работали тогда в стране, организовали в одном из уцелевших двухэтажных зданий среднюю школу с преподаванием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Этот факт в какой-то мере говорит о признании заслуг и высокой оценке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ибывших на помощь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из СССР, о их значительном вкладе в дел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й Кореи.

По воспоминаниям одного из главных авторов книги Германа Ли, в первый год в школе училось около двухсот учеников. Школа была средней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 классами от первого по десятый. Наполненность классов была разной; в выпускном классе училось всего восемь учеников, а больше всего в шестом – двадцать один.

Преподавание велось по тем же программам и учебникам, что в школах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и велось довольно хорошо, несмотря на нехватку учебников и наглядных пособий. Занятия вели обычные учителя из числа жен сотрудников советского посольства и родителей учеников школы. Учителя не просто преподавали – они всей душой любили и, наверное, жалели детей и болели, чтобы их подопечные хорошо овладевали знаниями. Многие ребята и учителя были знакомы ещё с довоенных времен по учебе в школе при советском посольстве, затем в Харбине во время эвакуации из-за войны в Корею.

Герман Ли рассказывает в книге о том, как в школе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учебный процесс и устроена общественная жизнь. Он в самом начале был избран председателем Учкома (учебного комитета) школы и скрупулезно записывал и сохранял записи обо всём, что касалось школьных дел, и у него накопился целый архив бумаг, который он умудрился хранить всю жизнь. Оттого, наверное, и выглядят его воспоминания ярко, будто было это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В них он приводит списки учащихся школы по классам, протоколы заседаний учкома о состоянии учебы и дисциплины, о борьбе за успеваемость, о том, по каким предметам и как проводились экзамены, как готовились шко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и о многом другом,

чем жила тогда школа.

Ученики сами добились, чтобы в школе была создана своя пионер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и ячейка Демсомола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й союз молодежи, подобно комсомолу), что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улучшению успеваемости и воспитанию у детей сознательности, дисциплины, лучших человеческих качеств.

В книге много интересных воспоминаний других соавторов книги – все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вспоминают годы своей молодости. Раут Огай и Виктор Когая рассказывают, как они, учась в девятом классе, совмещали учебу и занятия в аэроклубе. Им приходилось вставать спозаранку и зимой по темноте шагать несколько километров до аэродрома, потом заниматься и учиться летать на планере и на самолете. Другие вспоминают учителей, родителей и как они занимались, как ходили в походы, проводили школьные вечера, как праздновали дни рождения и вместе проводили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В книге приведены воспоминания в рассказе Юрия Когая «Страна моего детства» и отрывки из книги известного писателя Владимира Кима (Ёнг Тхека) «Там, где плачет жаворонок».

В 1954 году состоялся первый выпуск десятого класса. Все восемь выпускников успешно сдали экзамены, получили аттестаты зрелости советского образца и позже получили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Одна из них, Лилия Александровна Хан, наша землячка. Её воспоминания особо ценные и интересные – она не только окончила школу «Юккодюн», но в 1957 году сама была учителем 1-Б класса школы «Юккодюн».

Выпускники школы поступали в лучшие вузы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некоторые учились в странах народной демократии (тогда они так назывались): в Польше, Болгарии, Чехословакии. Некоторые имена воспитанников школы хорошо известны. Нелли Николаевна Эм стала заслуженным учителе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леном-корреспондентом Академии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доктором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наук, директором средней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школы с этнокультурным (корейским уклоном) компонентом образования №1086 города Москвы. Многим знакомо имя профессора, доктора политических наук Дмитрия Вольбоновича Мена – он, его брат Рома и сестра Клепа тоже учились в школе «Юккодюн». Учасшие школы стали учеными, врачами, строителями – все без исключения достойными людьми.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Полигранд"

реклама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72-34-60, 72-22-03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В России пройдут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ённы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В России состоится комплекс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ённых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 выставк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вице-премьер, министр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РК Хон Нам Ги, выступая в прошлую пятницу на заседании оргкомитета совместного празднования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К и Россией. Оргкомитет рассматривает различные проекты, в основе которых четыре принципа – совместное процветание, стремление к будущему, творческая инновация и открытое участи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план запуска «Бренда-К»,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ляет лучшую продукцию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компаний страны в целях их продвижения в рамках «новой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Ведётся работа по проработке проекта «Eurasia K Food», который нацелен на знакомство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кухней регионов вдоль Транссибирско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магистрали.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готовить турне молоды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ртистов по этому маршруту. Хон Нам Ги заявил о готовности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синерги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потенциалов двух стран, а также поддерживать стартап-компании, желающие начать работу на российском рынке. К 30-летию двусторонн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30-летию гибели Виктора Цоя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совместн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рок-концерта.

## Комитет СБ ООН по санкциям одобрил отправку гуманитарных грузов в КНДР

Комитет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по санкциям одобрил отправку гуманитарных грузов в КНДР тремя организациями,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ВОЗ, фонд Eugene Bell и Всемирна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WFP). 7 февраля на сайте комитета появилась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м, что ВОЗ получил разрешение на ввоз в КНДР стетоскопов, микроскопов, портативных ультразвуковых тестеров для брюшной полости и друг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Фонд Eugene Bell получил разрешение на ввоз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лечения полирезистентного туберкулёза. Всемирна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направит в КНДР телеги, лопаты, кирки и другие наименования грузов на сумму 110 тыс. долларов. Между тем, фонд ООН в области народонаселения (ЮНФПА) утвердил бюджет на оказание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Северу в этом году в сумме 2 млн долларов.

## В Сеуле начал работу колл-центр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по проблемам нового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Сеуле начал работу колл-центр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по проблемам, связанным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нового коронавирус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о вторник в мэрии Сеула. Консультации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на восьми языках – китайском, английском, вьетнамском, узбекском, филиппинском, урду, непали и монгольском. В случае поступления заявления о симптомах вируса центр окажет помощь в госпитализации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переводческих услуг.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поддержки иностранцев Seoul Global Centre возможна консультация на японском, тайском, арабском, русском и индонезийском языках. В мэрии столицы сообщили, что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получают также нелегалы, о которых власти обещают не сообщать в иммиграционную службу. Все расходы на лечение берёт на себя государство. То же самое касается и расходов на нахождение в карантине.

## Взгляды южнокорейской молодёжи на КНДР изменятся

Сред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молодёжи отмечено ухудшение отношения к КНДР. 11 феврал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опубликовали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ённого с 21 октября по 29 но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среди 66 тыс. школьников и 3.817 учителей. На вопрос об отношении 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режиму 43,8% школьников не исключили возможност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вух Корей. Это на 7,1% мен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35,8% указали, что в отношениях с Севером следует соблюдать дистанцию. Показатель увеличился на 8%. Количество тех, кто считает Север объектом для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снизилось с 12,1% до 8,2%, а тех, кто видит в КНДР «врага» выросло с 5,2% до 8,1%. Стоит отметить значительное снижение доли респондентов, считающих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ирным. Эксперты считают, что подобные перемены во взглядах молодёжи связаны с влиянием застоя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Тем не менее, 55,5% респондентов считают объединение двух Корей необходимым. Не видят смысла в этом 19,4%. На вопрос о причинах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бъединения молодёжь выделила такие моменты как единство народа, устранение опасений о войне, возможность усилить страну, а также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RKI)

## Бывший зам посла КНДР попытается стать депутатом парлам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Известный перебежчик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Тхэ Ён Хо, который ранее был заместителем посла КНДР в Лондоне, попытается стать депутатом парлам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няв участие во всеобщих выборах 15 июня. Об этом 57-летний Тхэ заявил лично в ходе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в зд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арлам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На выборах Тхэ Ён Хо будет баллотироваться от ведущ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свободной Кореи (ПСК), которая имеет консервативную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и выступает за жесткую линию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критикуя политику нынешнего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Мун Чжэ Ина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Интересно, что Тхэ Ён Хо предстоит провести полноценную предвыборную кампанию, так как он будет баллотироваться не по партийному списку ПСК, а в одномандатном округе в Сеуле. К этому противостоянию, где бывший северокореец бросит вызов правящему лагерю, неизбежно будет приковано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СМИ.

Тхэ Ён Хо после побега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проработал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НИИ, аффилированном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разведкой, но затем покинул институт, так как его критические взгляды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разошлись с линией нов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которое стало делать ставку на развитие связей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Пхеньяном. Тхэ и его окружение также жаловались, что косвенно правящие структуры дела-

ли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он не особенно широко фигурировал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Сам же Тхэ неоднократно заявля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верж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НДР во главе с Ким Чен Ыном. Если же Тхэ сумеет стать депутатом парламента, то ему будет невозможно помешать в выражении своих взглядов по поводу КНДР.

Напомним, что Тхэ Ён Хо прибыл в Южную Корею в августе 2016 г. Он сбежал с семьей из Лондона, где работал заместителем посла КНДР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Этот побег удивил многих, так как до этого Тхэ был известен многим западным журналистам как "рупо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Западе", где он постоянно регулярно рассказывал о достоинства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истемы. Тхэ также принимал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обеспечении пребывания в 2015 г. в Лондоне старшего брата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 Ким Чен Чхолья, который известен как большой любитель музыки и поклонник Эрика Клэптона. Тхэ потом написал книгу про КНДР и про свою работу, сказав, что решил бежать, так как власти КНДР отозвали его, не позволив сыну завершить учебу в англий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о слухам, побег заместителя посла КНДР очень сильно разозлил власт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оторые назвали его предателем. Тхэ до сих пор сопровождаются телохранителями, так как он опасается за свою жизнь.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 Третья групп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вернулась из китайского Уханя на родину

Третий чартерный самолёт с гражданами РК и членами их семей из числа граждан КНР прибыл в среду утром из китайского Уханя в аэропорт Кимпхо. Он доставил 140 пассажиров,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60 китайских граждан.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медицинского осмотра, проведённого сразу по прибытии, у пяти пассажир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подозрение на заражение новым типом коронавируса.

Ранее китайские власти запрещали своим гражданам покидать Ухань в связи с особым карантинным режимом, но 5 февраля они изменили свою позицию. К категории членов семьи, которые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чартерным рейсом, относятся супруги, дети и родител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Изначально предполагалось эвакуировать 170 человек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личеством поданных заявок, однако ряд пассажиров не смогли пройти санитарно-карантинный контроль при вылете из Уханя или не предоставили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род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с гражданами РК,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покинуть Китай. 30 и 31 января были выполнены два чартерных рейса, тогда были эвакуированы 701 человек.

Между тем, после эвакуации в Ухане останутся около ста южно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по разным причинам не могут покинуть город. Если они изъявят желание вернуться в РК, то может быть организован ещё один чартерный рейс.

KBS World

## Уханьская пневмония может нанести серьёзный удар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РК

В случае продолж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уханьской пневмонии туристический рынок РК может сократиться до 40%, как это было при эпидемии MERS.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представленном 7 февраля докладе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Чхуннам, который изучил нынешнюю ситуацию, сделав прогноз о возможном развитии событий, исходя из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данных, связанных с MERS. Если вирус распространится по регионам страны, и процесс борьбы с пневмонией затянется, это вызовет ослабл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и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В документе приводятся данные о том, что, если в июне 2014 года наиболее известны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страны посетили 19 млн 800 тыс. туристов, то в июне 2015 года, во время эпидемии MERS, показатель снизился на 40% до 11,9 млн человек. Ситуация стабилизировалась лишь в августе. Исходя из этого опыта, эксперты полагают, что сценарий может повториться, если вирус распространится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Отмечаетс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азработки программ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туризма и потребления.

KBS World

## РК достигла успеха на CES-2020

Результатом участия мэрии Сеула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й электроники-2020 (Consumer Electronics Show) стало проведение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партнёрами переговоров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и контрактах на сумму 14 млн 810 тыс. доллар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7 февраля в мэрии. На выставке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Сеульский павильон, в котором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представили 20 предприятий, отобранных мэрией. Они провели 945 консультаций по инвестициям. Переговоры продолжаются. В мэрии высоко оценили такой результат, сообщив о намерении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выставке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увеличив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от Сеула.

KBS World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5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 этап Кубка мира по паралимпийскому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масштаб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состоялась 9 февраля на нижней площадке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течение почти двух недель за медали на острове будут бороться 4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США, Норвегии, Франции, Австрии, Польши, Италии, Швейцарии, Финляндии, Словакии и России. Это участники, призёры и победители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программе – пять дисциплин: слалом, слалом-гигант, супергигант, параллельный слалом и скоростной спуск.

Участников и гостей чемпионата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по зимним видам спорт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ара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Димитрие Лазаровски,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Пара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России Андрей Строкин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 Хочу выразить особую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за прекрас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Я надеюсь и верю, что мы еще не раз вернемся на Сахалин. Причем не только с горными лыжами, но и с лыжными гонками и сноубордом, – отметил Димитрие Лазаровски.

– Этап Кубка мира по Всемирному Паралимпийскому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Сахалин-2020» прошу считать открытым! Желаю спортсменам ярких выступлений и побед. Это важное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бытие, которое призвано укрепить дружбу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и народами. Большая честь, что состязания проходят на нашем острове. Ведь по масштабу они уступают лишь Паралимпийским играм и чемпионату мира. Мы долго готовились к этим стартам и приложили максимум усилий, чтобы всё прошло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 подчеркну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На сцене выступили артисты театра танца «Аквар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гимназии №2 и воспитанники отделения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основу их совместной постановки лёг сюжет, главные герои которого – Хозяин Горы и девочка, мечтающая стать горнолыжницей. Юная спортсменка идет к вершине, побеждая страхи и неуверенность в собственных силах. Через сценические образы гости и участники состязаний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истори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этносами, проживающими здесь, и их обычаями.

Важной частью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о знакомство зрителей со спортсменами. На парад вышли сборные команды-участницы состязаний. Всего в составе делегаций – около ста человек.

Неотъемлемая часть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 поднятие флагов. Символ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ара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несли сахалин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Среди них – чемпион России по парасноубордроссу и участник Паралимпиады в Пхёнчхане Владимир Игушкин.

– Я считаю, что этап Кубка мира очень важен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Подоб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рестижны. Благодаря им очень много людей со всего мира узнает 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вторых, эти состязания пробуждают у людей интерес к спорту. Также они показывают, что на острове полным ходом идёт развит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 рассказал Владимир Игушкин.

Спортивный праздник продолжился творческими выступлениями. Музыкальные и танцевальные номера для зрителей представили воспитанники областных клубов, объединений и студий,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портивных семей города.

Финальной частью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 вокальный флешмоб – все участники церемонии вместе с солис-

том Евгением Кофановым и артист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исполнили авторскую песню «Мы встанем на вершину пьедестала».

Этап Кубка мира по Всемирному Паралимпийскому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Сахалин-2020»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на острове до 21 февраля. Первые официальные старты чемпионата состоялись 12 февраля – спортсмены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скоростном спуске.

За результатами и новостями состязаний можно следить на сайте: <http://worldcup-sakhalin.org/>.

## Более полутора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вышли на «Лыжню Росс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ентром 38-ой Всероссийской массовой лыжной гонки стало село Троицкое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8 февраля, несмотря на морозную погоду, на трассе вышли спортсмены и любители беговых лыж в возрасте от 2 до 80 лет.

Приверженцев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от имени губернатора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Наумов.

–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за то, что вы такие смелые и сильные, что никакой мороз не смог вас испугать. Это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доказывает, чт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 самый спортивный в России. Мы продолжим строить современные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приобретать инвентарь для спортшкол,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занимались физкультурой и укрепляли свое здоровье, – обратился он к участникам и гостям спортивного праздника.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ходили в четыре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ях: мальчики и девочки 2013 года рождения и младше, юноши и девушки 2007-2012 годов рождения, юноши и девушки 2002 года рождения и моложе, а также мужчины и женщины 2001 года рождения и старше.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ы, сахалинцы бежали одну из четырех дистанций: 200 метров, 2, 5 или 10 километров.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бедителем среди мальчиков на дистанции 200 метров стал Михаил Паша,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расположился Кирилл Веенов, на третьем – Роман Черкасов. Среди девочек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показала Анна Бородина, за ней финишировала Ульяна Багмут, тройку лидеров замкнула Анна Николаева.

На дистанции 2 километра среди юношей победу одержал Михаил Заярный, вторым стал Роберт Ким, почетное третье место у Григория Цакуряна. Золото у девушек получила Полина Тен, серебро досталось Светозаре Улитниной, бронза – АLINE Видякиной.

Быстрее всех 5-километровую дистанцию преодолел Максим Косарев, вторым стал Илья Кудрин,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 Никита Бородин.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среди девушек показала Анна Кожина, на второй позиции – Ульяна Николова, почетное третье – у Елизаветы Пуленковой.

Иван Кустов стал обладателем золотой награды на дистанции 10 километров среди мужчин, серебряный призер – Дмитрий Туктаров, бронза – у Александра Пальникова. Среди женщин победила Кристина Зыкова, обладательницей серебряной награды стала Наталья Львова, бронзовая медаль у Олеси Юрченко.

Все призеры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лучили кубки, медали и дипломы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портсмены, занявшие первые места на 5-километровой дистанции, выиграли сертификаты на бесплатное обучение в автошколе ДОСААФ на водительск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категории «В». Победителям на дистанции 10 километров вручили сертификаты на годовой абонемент в один из фитнес-клуб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тдельно отметили еще двух спортсменов. Гордей Витюцкий, 2017 года рождения, стал самым юным уча-

стником соревнований. А самым старшим лыжником в этот день был Иван Кулешов, 1939 года рождения.

На «Лыжню России» в этот день вышли не только в Троицком, но и в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в 73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Ежегодно десятки тысяч жителей России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и уровня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собираются вместе, чтобы преодолеть дистанции, пообщаться с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ами, зарядиться энергией и хорошим настроением.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ало работать министерство энергетики

Ведомство образовано на баз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и газификации. Его ключевая задача –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и скорость реализац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в регионе.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спытывает немало проблем в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сфере. Среди них – затянувшаяся газификация. Работы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ыполнены всего на 30%. Это примерно вдвое ниже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ого показателя. Кроме того, из-за обветшалых электрических сетей аварии в энергосистеме острова случаются в 3-5 раз чаще, чем в среднем по стране. Чтобы решить накопившиеся проблемы, было создано нов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вывести безопасность энергосистемы региона на качественно новый уровень, – отметил Герман Тютюк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ведомства. – Многие действующие сегодн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электрические сети строились давно, по старым стандартам. Сейчас они не всегда выдерживают ветровые нагрузки, а в ряде случаев 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т требованиям по сейсмике. Разработана программ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реконструировать и модернизировать электросети. Предстоит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Еще одно направлен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нов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 внедрение на островах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источников генерации. В част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планируют более широк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етряные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и солнечные панели. Это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о дл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Там планируют задействовать комбинированные системы, в которые наряду с альтернативными войдут традиционные источники энергии, использующие в качестве топлива сжиженный природный газ (СПГ).

Отметим, глава нов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Герман Тютюков хорошо знаком с энергетикой области. С 2010 по 2017 он курировал направления реконструкции и модер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энергосистемы, занимая должность директора по ремонтам и реконструкции ПАО «РАО Энергетические системы Востока»,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разработке программы обеспечения устойчивой работы электросетевого комплекс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УРЭК). Имеет техническое и управлен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 окончил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техн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Энергоснабжение» и «Экономика и управление на предприятии –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менеджмент», продолжает повышать уровень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ы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ерман Викторович –потомственный энергетик. Родился и вырос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Всю труд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святил энергетик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ошел трудовой путь от электромонтера до руководителя высшего звена энергосисте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Занимал руководящие должност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компаниях холдинга «РусГидро» и ПАО «Квадр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Юккодюн» – русская школа в Пхеньяне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Большинство учеников «Юккодюн» вернулись в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и вскоре образовалась школьное братство юккодюновцев, движущей силой которого являются активисты, которые со всеми поддерживают связь и организуют встречи. Прежде они собирались на встречи одношкольников со всех концов страны в Москве, Ташкенте, Алма-Ате. Каждой встрече предшествовала тщательная подготовка – на встречи собиралось до тридцати человек. Создавался и работал оргкомитет – обо всем в книге подробно описано. На встрече алматинских юккодюновцев в августе 2015 года родилась идея издать книгу о школе – «Юккодюн» – на основе воспоминаний бывших воспитанников школы.

Что же их так тянет друг к другу, на чем держится и не ослабевают их многолетняя дружба? Наверное, дело в том, что в детские и молодые годы им вместе пришлось пережить много трудностей и невзгод. Им довелось испытать ужасы войны, когда они бежали от неё, спасаясь от обстрелов и бомбардировок, передвигаясь по ночам с пожитками на плечах пешком, на повозках и автомобилях по полям и горным дорогам. Для них незабываем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ное в эвакуации в Харбине

и потом, когда они учились в институтах вдали от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Но были ещё большие страдания, когда их родители подверглись чисткам и политическим преследованиям, а кто-то был репрессирован и сослан в трудовой лагерь на перевоспитание или на каторгу.

Наша книга – это дань памяти старшим поколениям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 только тех, кто прошел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но всех корейцев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кто жил тогда в СССР. На их долю выпало много тяжелых испытаний, они были свидетелями и участниками многих драмат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в юношеские годы пережили депортацию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выживание на новом месте с клеймом неблагонадежности, напряженный труд в военные годы, в годы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а потом ещё девяностые...

Тем, кто участвовал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КНДР, пришлось пройти ещё одну войну, уже в гуще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участвовать и руководить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страны, создавать почти с нуля экономику и работать в условиях острой внутри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ой борьбы. Потом перед ними встал мучительный выбор: остаться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или вернуться в СССР.

Многие имена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КНДР упомина-

ются в книге. Они широко известны: Нам Ир, Пак Чан Ок, Пан Хак Се, Ким Сын Хва, Пак Ы Ван, Ко Хи Ман, Ли Дон Хва, Ким Вон Гир, Ким Дан и другие. Они, проты в прошлом советские учителя, специалисты и военные, стали во главе КНДР, занимали высокие посты в государстве 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были министрами, генералами, ректорами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были увенч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наградами – все оказались в той или иной степени жертвами политических, как сейчас говорят, разборок и заплатили – кто жизнью, кто карьерой. У многих осталась горечь на душе от проявленной к ним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Большинство их возвратились в СССР и вернулись к жизни рядовых советских граждан.

Наша книга лишь приоткрывает завесу, за которой кроется необычная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КНДР, о которых долгое время замалчивали и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и в самой КНДР. И хотя книга – дань памяти старшим поколениям, она нужна ныне живущим. Для нас, кто идет по жизни следом за ними, важно понимать и помнить, что они проложили нам путь и обеспечили для нас лучшее будущее и благодаря им оно у нас есть.

Георгий КАН, составитель книги «Юк-ко русская средняя школа в Пхеньяне».

Источник: <https://koreans.kz/news/yukkodyun-russkaya-shkola-v-phenyane.html?lang=ru>

#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15.00

### Юбилей,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 [우리말로 깨달다]

## 도리도리 잼잼

예전의 것은 낡은 것이 아니라 늘 배울 점이 많은 보물창고 같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깜짝 놀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선생의 어제까지의 세계(The Until Yesterday)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나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감탄이 절로 납니다. 옛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였다는 점, 그렇게까지 의미 있고 과학적이었는가에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긴 수천 년 이상의 세월 동안 지혜가 쌓이고 쌓여 온 것인데, 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요.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빠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거의 움직이지 않았으니 몸이 굳어있는 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펴고 하품을 하는 것은 몸을 푸는 방법일 겁니다. 베개의 높이도 내 몸의 움직임에 따라 목에 부담을 주었을 겁니다. 자다가 몸에 쥐가 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우리 몸은 자면서 경직이 되기도 합니다. 자고 일어날 때 무리를 하면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움직여서 허리나 목 등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저도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허리가 오랫동안 아팠던 적도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내 몸을 천천히, 내 마음도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눈을 뜨는 것은 세상에 적응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목이 무척 빠근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을 들고 천천히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보았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목을 돌립니다. 하

나 돌 마음속으로 소리를 내다가 문득 '도리도리'라고 말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리도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는 예전부터 아가들이 목을 가늘 무렵이 되면 목 운동을 시킵니다. 도리도리를 하면서 아이들은 목을 부드럽게 돌리면서 목을 가늘 힘을 갖습니다. 도리도리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원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돌리다'는 말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부터, '머리'에 해당하는 옛말이라는 의견(서정범), 한자 '도리(道理)'에서 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돌리다'에서 어원을 찾는 것은 머리를 돌리는 것이니 돌리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생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운동을 시키는 것이죠. 머리의 의미를 가진 옛말이라는 의견은 신체 어휘를 가르치는 교육에 중점을 둔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와는 어휘가 지금과는 달라져 있어서 쉽게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어휘 교육의 측면에서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도리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의견도 흥미로운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리도리와 함께 아가들에게 쓰는 말을 살펴보면 더 정확한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잼잼, 곤지곤지, 부라부라, 짹짹' 등이 있습니다. 이 말도 모두 운동을 시키는 동사라는 의견과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명사라는 의견, 선조의 철학이 담긴 어휘라는 의견으로 나누어집니다. 잘 살펴보면 흥미로운 의견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도리도리를 마치고 천천히 '잼잼'도 해보았습니다. 손을 쥐었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몸에 피가 돌기 시작하고 저린 손끝이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입으로도 '잼잼'이라는 소리를 되뇌어 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잼잼을 시켰던 생각이 납니다. 기억나지 않는 제 어린 시절도 어렵듯이 기억나는 듯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웃고 계시네요. 몸과 마음이 더 따뜻해집니다. 웬지 위로를 받는 느낌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시작되었던 일이 저를 거쳐 아이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내친 김에 곤지곤지도 해봅니다. 조금은 변형해서 하게 되네요. 아가들 손과는 이제 기능이 많이 달라졌으니 말입니다.

온몸과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훨씬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도리도리 잼잼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 세월 전해져 온 지혜가 제 몸과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흘러갑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살아야겠습니다. 부드럽게 살겠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To vote, you must apply or register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2017. 3. 31. ~ 2020. 2. 15.**  
Registration period for overseas voters | 2017. 3. 31. ~ 2020. 2. 15.

**국외부재자 신고 | 2019. 11. 17. ~ 2020. 2. 15.**  
Overseas absentee application period | 2019. 11. 17. ~ 2020. 2. 15.

**재외선거권자 Overseas voters**

- 재외선거인 Overseas voters**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South Korean citizens 19 years of age or older who are not registered residents and would like to vote overseas
- 국외부재자 Overseas absentee**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South Korean citizens 19 years of age or older who are registered residents and would like to vote overseas

**신고·신청방법 Method for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 인터넷 이용 (ova.nec.go.kr)**  
On the internet (ova.nec.go.kr)
- 공관방문 / 순회접수**  
Visiting the official government office / mobile booths
- 우편 / 전자우편 이용**  
Through post / email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Permanent list of overseas voters**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2016년 국선, 2017년 대선) 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됩니다.  
Those who are on the overseas voting list for the previous election may participate in overseas voting without additional registration. However, individuals who have not participated in overseas voting two consecutive times or more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2017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deleted from the permanent list.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List Browsing and Appeals**

- 기간: 2020. 3. 7. ~ 3. 11. (5일간)**  
Period: 2020. 3. 7. - 3. 11. (5 days)
-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Method: Viewing and appeal application can be done a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District Office or City Hall websites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21st National Assembly Overseas Voting



세계 속의 한국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  
Koreans around the world: You are a South Korean voter.

**신고·신청기간 | 2020. 2. 15. 까지**  
Application or Registration Period | By 2020. 2. 15.

**투표기간 | 2020. 4. 1. ~ 4. 6.**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Voting Period | 2020. 4. 1. ~ 4. 6. (The voting period may vary by government office)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ЧП произошло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около озера Валентина в охотничьем угодье, закрепленном за предприятием прибрежн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Айленд Фиш Инвест». Небольшой зверь подошел к сторожке, где в это время нес дежурство охранник, и на его глазах растерзал пса.

— Сообщение оперативно поступило в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была созвана оперативная группа, в том числе сигнал поступил и сотрудникам МЧС. Место, где произошел инцидент, труднодоступное.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помогли решить вопрос с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ой группы. Задействовали вертолет. Специалисты обнаружили медведя в окрестностях и произвели вынужденный отстрел, так как зверь представлял реальную угрозу жизни и здоровью людей,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минлесхоза Данила Дударев.

Как оказалось, косялапый уже не в первый раз показывался на глаза сотрудникам предприятия. Животное было некрупное и худое.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оно не набрало достаточного запаса жира и находилось в постоянном поиске еды.

Дударев добавил, что случай появления медведя-шата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сезоне — первый. Ранее от лесничеств не поступало подобных сообщений.

## Сахалин 주민들 러시아 타지역보다 보드카 더 많이 마신다

보드카 소비 순위로 본 상위 5위 지역들에 사할린

주, 마가단주, 코미공화국, 추코트카 자치구, 카렐리야 공화국이 올랐다. 이에 대해 언론사 <이즈베스티야>가 조사해 연방 및 지역 알콜시장 연구센터가 자료를 입증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들 지역들은 추운 기후로 전통적으로 도수가 높은 음료를 선호한다고 한다. 지방 행정부는 불법 주류 퇴치에 따른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합법적인 주류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주류 소비 총결산에 따르면 보드카 음주가 가장 활발한 지역들은 사할린주(1인당 12리터), 마가단주(1인당 11.4리터), 코미공화국(1인당 10.6리터), 추코트카 자치구(1인당 10리터), 카렐리야 공화국(1인당 9.6리터)이라고 밝혀졌다. 이 통계조사는 러시아 연방 및 행정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와 합법적 알코올 판매량에 따른 러시아 알코올규제청의 통계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이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주류 소비에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고 러시아 연방 및 지방 알콜시장연구센터의 바짐 드로비츠 회장이 밝혔다.

1년 동안 사할린주와 마가단주를 비롯해 카렐리야 공화국에서 주민 1인당 보드카 소비량은 2% 감소했고, 코미공화국과 추코트카자치구는 반대로 증가해 1%와 3%에 해당됐다. 바짐 드로비츠 회장은 이들 지역들에 평균 근로임금이 높아 주민들에게 합법적으로 주류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적 알콜은 공식 통계조사에서 배제되고 있다.

## Сахалинцы пьют водку больше других россиян

В топ-5 регионов — лидеров по потреблению водки вошли Сахалинская и 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Коми, Чукотка и Карелия.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данные Центра исследований федерального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ынков алкоголя (ЦИФРРА), с которыми ознакомились "Известия". Это регионы с холодным климатом, где традиционно предпочитают крепкие напитки, говорят эксперты. Власти самих "пьющих" субъектов утверждают, что принимают максимум мер по борьбе с нелегальным алкоголем, поэтому продажи легального спиртного растут.

Самыми активно пьющими водку в стране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стали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12 л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и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ей (11,4 л), а также Коми (10,6 л), Чукотки (10 л) и Карелии (9,6 л). Рейтинг формировался на основании статистики Росалкогольрегулирования о легальных продажах спиртного и официальных данных о населении субъектов РФ.

Эти регионы традиционно лидируют и по потреблению алкоголя в целом, пояснил глава ЦИФРРА Вадим Дробиз.

При этом за год в Сахалинской и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ях, а также в Карелии количество выпитой водки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снизились на 2%, а в Коми и на Чукотке, напротив, выросло — на 1% и 3%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адим Дробиз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 этих регионах высокие средние зарплаты, что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гражданам покупать легальный алкоголь. Нелегальное спиртное не учитывается в официальной статистике.

(Сахалин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 ЕДА.САХ.КОМ

###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БОЛЕЕ 100 ЗАКАЗОВ**

Нашим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Вам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ПОЧЕМУ С НАМИ УДОБНО?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Заказы запоминаются, их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ПОПРОБУЙТЕ

НА САЙТЕ [eda.sakh.com](http://eda.sakh.com)

Десктопная версия

Мобильная версия

ИЩИТЕ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http://eda.sakh.com)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30</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